

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

【지역이슈분석 2012-2】

2012 2. 22.

유로존 재정위기국의 디폴트 가능성 분석

목 차

I. 유로존 재정위기국에 대한 신용평가 현황 ...	1
II. 유로존 재정위기국의 외채상환능력	3
III. 디폴트 가능성과 시사점	8

국별조사실

작성: 부실장 조양현 (3779-5707)
yhjo@koreaexim.go.kr

확인: 실 장 이한구 (3779-5702)
hklee@koreaexim.go.kr



■ 그리스에 대한 2차 다자간 구제금융 지원이 7개월간 협상이 지연된 가운데, 2012년 2월 21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결정됨. 2011년 12월 이후 그리스 정부의 디폴트 우려¹⁾가 일시적으로 완화되었지만, 그리스 등 유로존 재정위기국의 거시경제지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유로존 재정위기국의 디폴트 가능성을 점검해 보고자 함.

I. 유로존 재정위기국에 대한 신용평가 현황

1. S&P의 국제신용등급

□ S&P, 그리스 국제신용등급을 디폴트 직전 수준으로 평가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공인한 3대 신용평가기관인 S&P, Moody's 및 Fitch 가운데 신용평가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S&P의 유로존 재정위기국에 대한 국제신용등급²⁾은 2009년 이후 급락추세를 보였음.
- 2012년 2월 기준으로 S&P가 유로존 재정위기국에 대해 평가한 국제신용등급을 비교하면, 그리스 CC등급(OECD 등급³⁾으로 매칭하면 7등급 수준, 아일랜드 BBB+등급(OECD 2등급 수준), 포르투갈 BB등급(OECD 4등급 수준), 스페인 A등급(OECD 1등급 수준), 이탈리아 BBB+등급(OECD 2등급)으로 평가함 (<표 1> 참조).
- S&P의 국제평가등급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A등급은 채무상환능력 양호(strong payment capacity), BBB등급은 채무상환능력 적정(adequate payment

1) 10년 만기 국제수익률은 2010년 이후 그리스 35.776%(2011.12.21)로 독일 국제(Bunds) 기준 스프레드는 3,384bp, 포르투갈 17.393%(2012.1.30)로 스프레드는 1,560bp, 아일랜드 13.782%(2011.7.18)로 스프레드는 1,113bp, 이탈리아 7.261%(2011.11.25)로 스프레드는 499bp의 최고치를 각각 기록했지만 2012년 2월 15일 기준으로 국제수익률은 그리스 33.27%, 포르투갈 12.055%, 아일랜드 6.835%, 이탈리아 5.738%, 스페인 5.437% 수준을 기록하여 2012년 들어 전반적으로 국제수익률은 전년에 비해 하락한 상태임.

2) 각국 정부가 발행하는 장기채권 외화표시등급을 기준으로 정확하게는 정부채권 신용등급이지만 넓게 해석하여 국제신용등급도 적정한 표현임. 흔히 S&P, Moody's 및 Fitch가 평가한 신용등급을 국가신용등급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서 OECD에서도 2010년 9월 이후 국가위험(Country Risk)과 정부위험(Sovereign Risk)를 구분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도 S&P 등은 채권 발행주체에 대한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3) OECD(Export Credit Division 주관 국가위험 평가전문가회의에서 평가등급 결정)는 국가위험(Country Risk)을 OECD 또는 유로존 고소득국 수준의 0등급(국가위험 없음)에서 7등급(디폴트 수준)으로 평가(8단계)함.



capacity), BB등급은 채무상환능력 다소 취약(less vulnerable payment capacity), CC등급은 디폴트(SD 등급) 직전의 채무상환불능위험 고조(high vulnerable payment capacity) 수준인 것으로 평가함.

<표 1> 유로존 재정위기국에 대한 S&P의 국제신용등급 평가추이
(2009.1~2012.2)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2009	A-/S(1월) BBB+/N(12월)	AA+/N(3월) AA/N(6월)	A+/N(1월)	AA+/N(1월)	
2010	BB+/WN(4월)	AA-/N(8월) A/WN(11월)	A-/WN(4월)	AA/N(4월)	
2011	BB-/WN(3월) B/WN(5월) CCC/N(6월) CC/N(7월)	A-/WN(2월) BBB+N (4월)	BBB/WN(3월) BBB-/WN(3월)	AA-/WN(10월)	A/N(9월)
2012			BBN (1월)	AN (1월)	BBB+N (1월)

주: S는 Stable, N은 Negative, WN은 Watch Negative의 약자임.

자료: www.standardandpoors.com

2. 한국수출입은행의 국가신용등급

□ 한국수출입은행, 그리스, 포르투갈 및 아일랜드 신용등급 대폭 하향조정

- 그리스, 아일랜드 및 포르투갈은 OECD 고소득국으로 분류되어 OECD 수출신용과(Export Credit Division)에서도 국가위험(Country Risk)이 없는 0등급(최고등급)⁴⁾을 부여받아 왔으나, 2010년 이후 남유럽을 중심으로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유로존 재정위기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재평가 필요성이 제기됨.⁵⁾
- 따라서, 유로존 재정위기의 근원지인 그리스, 아일랜드 및 포르투갈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2011년 전면 재평가하여 종전 신용등급(A등급)⁶⁾에서 그리스

4) OECD는 최고 0등급에서 1,2,3,4,5,6,7 등급(최저수준)으로 8단계로 분류하여 국가위험을 평가함.

5) 한국수출입은행은 OECD 평가등급을 원용하여 A등급으로 평가해 왔으나, 이들 국가의 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점차 고조되면서 OECD 등급과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의 등급간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재평가 필요성이 대두됨.

6) 한국수출입은행은 최고 A등급에서 B1, B2, C1, C2, C3, D1, D2, E등급(최저 수준)으로 9단계로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함.



D1등급, 포르투갈 C3등급, 아일랜드 C2등급으로 하향조정함(<표 2> 참조).

- 그리스, 포르투갈 및 아일랜드는 각각 2010년 3월, 2011년 4월 및 2010년 11월에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하여 현재 IMF 차관조건을 이행 중임.

<표 2> 유로존 재정위기국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의 국가신용등급 비교
(2011년 평가내역)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국가신용등급	A → D1 (2011.9.20)	A → C2 (2011.11.8)	A → C3 (2011.12.22)
종합평점	35.0	46.0	41.0

주: 한국수출입은행의 국가신용등급은 종합평점(최저 10점, 최고 90점) 기준, 9단계로 평가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II. 유로존 재정위기국의 외채상환능력

1. 재정 및 정부채무 관리상태

□ 재정수지 적자 심화가 채무위기로 전이되는 양상

- 유로존 재정수지 적자는 2008년 이후 악화되기 시작하여 2009~10년에는 GDP 대비 평균 6%를 상회함으로써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과거 경험상 대부분의 국가가 정부채무 불이행 가능성에 노출됨.
- 유로존 전체의 정부채무/GDP 비중은 2011년 3분기 말 기준으로 평균 87.4%(8조 1,913억 유로)로 전 분기의 87.7%(8조 1,646억 유로) 보다는 낮아졌지만 전년 동기의 83.2%(7조 5,705억 유로)보다는 높아져 정부채무가 누적됨.
- 2011년 9월말, 정부채무/GDP 비중이 높은 국가는 그리스(159.1%), 이탈리아(119.6%), 포르투갈(110.1%), 아일랜드(104.9%) 등으로 나타남(<표 3> 참조).
- 2011년 3분기 말 기준 전 분기에 비해 정부채무/GDP 비중이 상승한 국가는 그리스(4.4 pp), 포르투갈(3.6 pp) 등이었고, 정부채무/GDP 비중이 하락한 국가는 이탈리아(-1.6 pp) 등임.



<표 3> 유로존 재정위기국별 재정수지/GDP 및 정부채무/GDP 추이

단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재정	채무	재정	채무	재정	채무	재정	채무
그 리 스	-9.8	113.0	-15.8	129.3	-10.6	144.9	-8.3	159.1
아 일 랜 드	-7.3	44.2	-14.2	65.2	-31.3	92.5	-10.3	104.9
포 르 투 갈	-3.6	71.6	-10.1	83.0	-9.8	93.3	-5.8	110.1
스 페 인	-4.5	40.1	-11.2	53.8	-9.3	61.0	-6.6	66.0
이 탈 리 아	-2.7	105.8	-5.4	115.5	-4.6	118.4	-3.9	119.6
유로존 평균	-2.1	70.1	-6.4	79.8	-6.2	85.3	-4.1	87.4

주: 2011년 통계의 경우 9월말 기준임.

자료: ECB 및 Eurostat.

□ 정부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외지급준비자산 수준

○ 남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유로존 재정위기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는데, 2011년 말 기준으로 유로존 재정위기국의 정부채무/대외지급준비자산(금 포함) 비중은 10배 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외채관리능력이 크게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 2011년 말 기준으로 정부채무/대외지급준비자산 비중이 큰 국가로는 아일랜드(123배), 그리스(65배), 스페인(19배), 이탈리아(14배), 포르투갈(12배)의 순으로 나타남(<표 4> 참조).

<표 4> 유로존 재정위기국별 정부채무 및 대외지급준비자산 비교

단위: 백만 유로, %

구 분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정 부 채 무(A)	347,204	162,200	189,700	706,340	1,883,738
대외지급준비자산(B)	5,377	1,317	16,490	36,402	133,937
A/B(%)	6,457	12,316	1,150	1,940	1,406

주: 2011년 말 기준

자료: ECB 및 Eurostat.



2. 대외거래 포지션

□ 경상수지의 점진적 개선추세

- 유로존 경제권내 국가별 대외경쟁력 격차로 비롯된 경상수지 흑자국 또는 적자국 기조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말 이후 유로존 전체의 경상수지 적자가 평균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표 5> 참조).
- 아일랜드의 경우 유로존, 미국 및 영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80%에 달해 이들 지역의 경기회복 여부에 의해 대외무역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아일랜드의 경상수지는 2010년 GDP 대비 0.5%의 흑자(2008~09년 -5.6%, -2.9% 적자)로 반전된 이후 2011년에는 1.5%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표 5> 유로존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추이

단위: 억 유로

구분	2008	2009	2010	2011
경 상 수 지	-1,435	-259	-422	-12
상 품 수 지	-219	360	129	31
(상품수출)	15,885	13,025	15,600	4,445
(상품수입)	16,104	12,665	15,471	4,414
서 비 스 수 지	421	351	459	210
(서비스수출)	5,133	4,739	5,188	1,461
(서비스수입)	4,712	4,388	4,729	1,251
소 득 수 지	-668	-58	23	42
경 상 이 전 수 지	-970	-912	-1,033	-295
자 본 수 지	100	72	55	18

주: 2011년 통계의 경우 9월말 기준임.

자료: ECB 및 Eurostat.

□ 유로존의 외환보유액 부족현상 지속

- 2011년 말 기준으로 유로존의 대외지급준비자산(외환보유액 포함)은 6,671억 유로이며, 3대 유로존 경제권인 독일, 프랑스 및 이탈리아의 대외지급준비자산은 각각 1,846억 유로(전체의 27.7%), 1,331억 유로(20.0%) 및 1,339억 유로(20.1%)로 나타남(<표 6> 참조).



- 유로존 경제권에서 외환보유액(금 제외)을 비교적 많이 확보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및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월평균 수입액 대비 1~2개월 분에 불과하여 유로존 국가들은 대부분 대외지급에 충분한 외환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임.
- 현재 재정위기가 심화된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및 스페인의 대외지급 준비자산은 2011년 말 기준으로 각각 54억 유로(전체의 0.8%), 13억 유로(0.2%), 165억 유로(2.5%) 및 364억 유로(5.5%)로 3대 유로존 경제권(전체의 67.7%)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됨.

<표 6> 유로존 외환보유액 및 외채잔액 추이

단위: 억 유로

구 분	2008	2009	2010	2011
대외지급준비자산	3,742	4,624	5,912	6,671
(금)	2,170	2,661	3,662	4,221
(외환보유액)	1,451	1,349	1,550	1,613
<주식·채권>	1,295	1,152	1,313	1,481
총 외 채 잔 액	109,145	103,913	110,164	115,267
(정부기관)	17,470	19,757	21,868	24,361
(금융기관)	50,065	45,591	47,513	47,661

주: 2011년 통계의 경우 대외지급준비자산은 12월말, 총외채잔액은 9월말 기준임.

자료: ECB 및 Eurostat.

□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 결정

- 그리스 정부에 대해서는 2011년 7월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EU·IMF·ECB의 2차 구제금융 지원⁷⁾이 7개월 만인 2012년 2월 21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최종 결정됨(<표 7> 참조).
-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안에는 IMF 130억 유로 등 1,300억 유로의 유동성을 2014년까지 지원하되, 민간채권단 보유 국채 2,050억 유로 중에서 53.5%(1천억 유로 상당)를 탕감하고 나머지 31.5%(700억 유로)는 최대 30년 만

7) 2011년 7월 개최된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트로이카의 1,090억 유로 지원, 민간채권단 손실부담(21%, 9% 할인을 적용) 등으로 총 1,46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합의함. 당시 EFSF를 통해 연 4~4.5%의 대출금리로 기존 그리스 채무에 대해 10년 유예, 15~30년 상환 등이 제시됨. 이후 2011년 12월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민간채권단 손실부담을 21%에서 50% 수준으로 올리고, 2012년 310억 유로 등 2014년까지 3년간 총 1,300억 유로를 대출하여 2020년까지 정부채무/GDP 비중을 120.5% 수준으로 줄이려는 목표를 설정함.



기의 국채교환(bond-swap), 15%(300억 유로)는 직접대출로 지원함. 이로써 당장 금년 3월 20일에 만기 도래하는 국채 145억 유로의 상환이 가능해짐.

-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조건으로 최저임금(22% 수준), 임금(15%), 연금 및 실업수당 삭감, 2015년까지 공무원 1만 5천명 감원 등을 통해 금년 재정지출을 32억 유로(GDP 대비 1.5% 수준) 축소, 3억 2,500만 유로 추가 재정감축 등으로 2014년내 재정적자/GDP를 7% 수준으로 억제하는 긴축 재정조치를 요구함.8)
- IMF는 그리스에 대해 2010년 5월 9일, 3년간 396억 달러(264억 3,300만 SDR)의 대기성 차관(SBA), 아일랜드에 대해 2010년 12월 16일, 3년간 292억 달러(194억 6,600만 SDR)의 확대신용차관(EFF), 포르투갈에 대해 2011년 5월 20일, 3년간 356억 달러(237억 4,200만 SDR)의 확대신용차관 지원(승인)한 바 있음.9)

<표 7> 그리스에 대한 다자간 구제금융 지원현황

구 분	1차 구제금융	2차 구제금융
지원 시기	2010. 5. 2 (합의)	2012. 2.21 (결정)
지원 규모	1,100억 유로 (3년)	1,300억 유로 (3년)
유동성지원	EU(800억 유로), IMF(300억 유로)	EFSF · IMF(130억 유로), PSI
손실부담률	논의하지 않음	21%→50%→53.5%
대출금리	4.5~5.8%	1.5~3.5%
상환기간	7.5년	15~30년

자료: EU Observer 및 한국수출입은행 파리사무소.

8) 2월 12일, 그리스 의회는 전체 300석 중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연립내각(사회당과 신민당 의석은 236석 차지)이 EU 등 트로이카의 긴축재정조치 및 경제개혁안에 의결(찬성 199표, 반대 74표)함.
 9) 2012년 2월 기준으로 IMF의 실제 집행액은 그리스 17,542백만 SDR, 아일랜드 11,050백만 SDR, 포르투갈 11,503백만 SDR으로 나타남.



III. 디폴트 가능성과 시사점

1. 디폴트 가능성 분석

□ 단기유동성 위험 고조

- 통상 재정수지/GDP, 경상수지/GDP,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 등의 거시경제 지표가 단기유동성 위험 평가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동 지표를 근거로 경제위기국 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을 진단해 볼 수 있음.
- 유로존 경제권의 경우 외채 관련 통계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총외채잔액, 단기외채 등의 통계를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유로존 경제권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각국의 재정수지, 경상수지 및 외환보유액 수준에 관한 통계를 일차적으로 고려함(<표 8> 참조).

<표 8> 유로존 경제권의 단기유동성 위험지표 비교

단위: %, 개월

거시경제지표		재정수지/GDP	경상수지/GDP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
디폴트 임계치 기준		-3% 초과	-5% 초과	3개월 미만
유로존	그 리 스	-8.3	-9.9	0.4
	아 일 랜 드	-10.3	0.7	0.2
	포 르 투 갈	-5.8	-7.6	0.6
	스 페 인	-6.6	-3.4	1.5
	이 탈 리 아	-3.9	-3.6	1.6
	독 일	-1.3	5.1	1.0
	프 랑 스	-5.8	-3.2	1.3
	네 델 란 드	-4.3	5.5	0.8
	벨 기 에	-3.5	2.4	1.0
	오 스트 리 아	-3.4	2.7	1.2
경험국	인 도 네 시 아	-2.9	-2.3	2.8
	러 시 아	-4.8	0.1	1.1
	터 키	-19.6	-4.9	3.7
	아 르 헨 티 나	-3.3	-1.4	4.2

주: 경제위기 경험국은 인도네시아 1997~98년, 러시아 1998년, 터키 2000~01년, 아르헨티나 2001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함(유로존 경제권은 2011년 말 기준).

자료: IMF 및 European Commission.



□ 그리스·포르투갈, 디폴트 가능성 증가

- 유로존 경제권에서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가 모두 악화된 상태에 있는 그리스 및 포르투갈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과거 경제위기를 경험한 인도네시아(1997~98), 러시아(1998), 터키(2000~01) 및 아르헨티나(2001)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별로 재정수지/GDP 비중은 -2.9%, -4.8%, -19.6% 및 -3.3%, 경상수지/GDP 비중은 -2.3%, 0.1%, -4.9% 및 -1.4%로 나타나 공통적으로 재정수지 상황이 매우 악화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경제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의 외채상환 부담은 누적되어 인도네시아, 러시아, 터키 및 아르헨티나의 총외채잔액/총수출 비중은 각각 262.0%, 201.8%, 198.5% 및 381.2%,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비중은 187.9%, 124.4%, 123.0% 및 112.6%를 각각 기록한 바 있음.

<표 9> 그리스 및 포르투갈의 금융차입 규모 추산

단위: 억 유로, %

그리스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외 차입요구액	2,362	2,311	1,708	1,853	1,812
(단기 외채 상황)	1,824	1,819	1,407	1,501	1,580
(중장기 외채 상황)	355	357	184	262	176
(경상수지 적자)	182	134	117	90	56
정부 차입요구액	632	1,425	488	505	363
총외채잔액/GDP	116	105	109	109	105
정부채무/GDP	161	152	155	152	147

포르투갈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외 차입요구액	2,116	1,941	1,733	1,626	1,472
(단기 외채 상황)	1,701	1,547	1,393	1,310	1,229
(중장기 외채 상황)	270	287	251	241	176
(경상수지 적자)	145	107	88	74	61
정부 차입요구액	532	421	333	341	275
총외채잔액/GDP	234	228	221	271	213
정부채무/GDP	107	116	118	116	114

자료: IMF Country Report, December 2011.



- 2011년 11월 말 기준으로 그리스 및 포르투갈의 총외채잔액/총수출 비중은 각각 515.1% 및 669.0%로 추정되며, 국가별 외환보유액은 각각 12억 8,670만 달러 및 24억 3,100만 달러로서 단기외채 상환 부담액에 비해 훨씬 못 치는 수준으로 사실상 디폴트 상태임(<표 9> 참조).

□ 그리스, 단기외채 상환능력 의문

- IMF 추정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그리스의 총외채 규모는 GDP의 192.9%이고 단기외채 비중은 47.1%(1,909억 유로)로 외환보유액(13억 달러 수준)에 비해 매우 과중한 상태임.
- 과거 경제위기 경험국의 사례에서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비중이 100%를 상회할 경우 디폴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 점을 고려하면, 그리스의 2011년 말 기준 동 비중이 148배에 달해 EU, IMF 및 ECB 등 국제금융 기구의 금융지원이 없으면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은 농후함(<표 10> 참조).

<표 10> 그리스 대외거래포지션 추이

단위: 백만 유로

구분	2008	2009	2010	2011	
총외채잔액	364,393	416,775	407,175	405,038	
정부기관	단기	5,489	8,190	1,152	1,987
	장기	186,496	216,756	180,750	173,693
금융기관	단기	105,509	124,879	180,451	188,891
	장기	41,033	37,018	23,059	19,852
총외채잔액/GDP	156.5	176.1	179.8	192.9	
공적외채/GDP	82.5	115.9	120.7	141.5	
민간외채/GDP	62.9	60.1	59.1	51.4	
경 상 수 지	-34,812	-25,879	-22,920	-18,200	
경상수지/GDP	-14.9	-11.1	-10.1	-9.9	
대외지급준비자산	2,521	3,857	4,777	5,377	
F D I 유입잔액	27,390	29,222	26,213	19,785	

자료: 그리스중앙은행.



2.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실적 및 영향 분석

□ 유로존 재정위기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시사점

- 2011년 말 기준으로 유로존의 평균 실업률은 10.4%(1,647만 명)로 전년말의 10.0%에서 상승하였고, EU 전체적으로는 9.9%(2,382만 명)로 전년말의 9.5%에서 마찬가지로 상승함.
- 2011년 말 유로존 실업률 통계에서 최고 실업률을 기록한 국가는 **스페인**(22.9%), **그리스**(19.2%) 등이었고, 최저 실업률을 기록한 국가는 **오스트리아**(4.1%), **네덜란드**(4.9%), **룩셈부르크**(5.2%) 등으로 나타남.
-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국가는 **그리스**(5.3 pp), **사이프러스**(3.2 pp), **스페인**(2.5 pp) 등으로 나타남.

<표 11> 유로존 재정위기국별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 추이

단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성장	고용	성장	고용	성장	고용	성장	고용
그 리 스	-0.1	7.7	-3.3	9.4	-3.5	14.4	-6.8	19.2
아 일 랜 드	-3.0	6.3	-7.0	11.8	-0.4	14.5	1.1	14.5
포 르 투 갈	0.0	7.6	-2.5	9.5	1.3	12.4	-1.6	13.6
스 페 인	0.9	11.3	-3.7	18.0	-0.1	20.4	0.7	22.9
이 탈 리 아	-1.2	6.7	-5.1	7.8	1.5	8.1	0.5	8.9
유로존 평균	0.4	7.6	-4.2	9.6	1.9	10.0	1.5	10.4

자료: IMF, ECB 및 Eurostat.

- 요컨대, 그리스 및 포르투갈의 각종 거시경제통계를 기초로 살펴보면, 현재 이들 국가의 디폴트 위험성은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즉, 단기외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정도의 외환보유액 수준, 과도한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누적 등으로 경제상황이 개선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그리스 및 포르투갈 경제가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을 통한 재정수입 증가, 경상외환 확보 등으로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지 못하고, 실업문제 해결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경제사회적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결국 그리스 및 포르투갈의 경제위기 상황은 국제사회의 금융지원 조건 이행을 위한 각종 구조조정, 경제개혁 및 긴축정책 시행 등과 더불어 보다 강력한 경제성장 기반 구축을 통한 성장과 고용을 모두 만족하기 위한 난제를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음(<표 11> 참조).
- 지난 2월 21일 그리스에 대한 다자간 구제금융 지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10년 만기 그리스 국채수익률은 전날 33.837%에서 33.424%로 소폭 하락한 데 그쳐 국제금융시장은 냉담하게 반응함. 이번 지원으로 그리스는 디폴트 상황¹⁰⁾을 피했지만 중장기적으로 긴축정책에 따른 경제성장 부진과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문제로 자생적 경제회복이 어려운 구조에 직면함.
- 그리스는 EU, IMF 등 국제사회의 금융지원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점에 직면해 있어 향후에도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에 노출됨. 특히 금년 4월에 다가오는 총선을 전후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 위험이 더욱 고조될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임.

□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실적 현황

- 우리나라는 유로존 재정위기국(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및 이탈리아)에 대해 2008년 이후 수출규모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총수출이 2010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위 5개국에 대한 수출비중(2011년 기준 1.5%)은 축소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표 12> 참조).
- 2011년 7월 1일, 한-EU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EU 지역에 대한 수출은 유로존 재정위기로 현지 구매력이 저하됨에 따라 그 규모가 전반적으로 축소되었으나 우리나라의 대 EU 무역수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유로존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 우리나라의 대 EU(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파트너) 수출실적이 저조하게 되고, 결국 한-EU FTA 체결의 효과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10) 그리스에 대해 국제금융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 무질서한 채무불이행(disorderly default)도 가정함.



<표 12> 우리나라의 유로존 재정위기국에 대한 수출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8	2009	2010	2011
한국→그리스	1,413	3,203	1,209	1,350
한국→아일랜드	663	424	381	356
한국→포르투갈	411	431	1,110	713
한국→스페인	3,192	1,737	1,858	1,857
한국→이탈리아	3,546	2,797	3,569	4,108
5개국 총계 (비중)	9,225 (2.2%)	8,592 (2.4%)	8,127 (1.7%)	8,384 (1.5%)
우리나라 총수출	422,007	363,534	466,384	556,514

자료: 한국무역협회.

문의 :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부실장 조양현 (3779-5707)
yhjo@koreaexim.go.kr